

主婦의 結婚滿足度와 關聯變數考察

A Study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淑明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講 師 : 李 貞 連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Lecturer: Jung Yeon L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personal and psychosocial variables on the wives' marital satisfaction in order to develop theories about the stability of modern families. The data, collected from 490 mothers living in Seoul, is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OVA, Scheffe-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In my study,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consists of 7 dimensions; of which 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nd companionship are comparatively important variables.
- 2) Of demographic variables, wives' educational level is an influencing variable in 6 dimensions, and family monthly income, in general satisfaction.
- 3) Of personal variables, sex role attitude is a significantly influencing independent variable in satisfaction with children area and self actualization, variable i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rea.
- 4) Of psychosocial variables,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role strain are proved to be influencing variables, but role salience is not. Also, role enactment is the most influencing independent variable in almost areas of marital satisfaction.
- 5) By given independent variables, variance is explained 30% of all.

The implication that can be inferred from the above findings is that psychosocial variables are more important than demographic variables, and that personal variables such as androgyny, self-actualiz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further research.

I. 문제의 제기

몇몇 학자들은 가족을 갈등의 해결장소이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Croog, 1970). 그것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과거에 비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을 평가하는 변수로 지난 수십년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개념과 고유 영역 자체가 학자들간에 차이를 나타내며, 측정도구의 미비로 부분적인 측정에 불과하였다. 또한 관련변수들이 주로 인구학적인 변수에 머물렀으므로, 인성적, 사회심리적 변수의 발견은 현재의 연구과제로 중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준화된 결혼만족도의 척도구성과 인성적, 사회심리적 변수의 탐색에 목적을 두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간생태학의 중요개념인 적응(adaptation) 능력을 높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가족이론 정립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일반적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결혼만족도는 인구학적인 변수, 인성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결혼만족도 개념

결혼만족은 적응, 행복, 성공, 안정, 質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연구자마다 해석과 측정을 달리하면서 사용되어 왔는데(Burr, 1973), 현재는 대체로 객관적인 성공이나 보상정도에 의한 것보다는, 주관적인 행, 불행상태를 결혼만족의 개념으로 채

택하여 태도변수로 인식되고 있다(Burr, 1979; Rollins와 Galligan, 1978).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을 관계의 측면으로 파악하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결혼 만족도를 선택하며, 결혼만족도란 한 개인의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즉 일종의 肯定的 또는 호의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의 측정방법으로는, 전반적 결혼상태를 측정된 연구와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을 측정된 연구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명확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 결혼생활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파악되지 않고(Snyder, 1979) 또한 개인의 결혼만족은 영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Burr, 1970)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후자의 방식은 부부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Orden과 Bradburn, 1968; Spanier, 1976; 이정연, 1982; 박태은 1983; 한남제, 1984)와 생활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Burr, 1970; 김병자, 1977; 유영주, 1979; Snyder, 1979; 서동인, 1985)로 크게 구분되는데,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결혼만족에서 부모자녀관계, 시가관계 등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부부관계만으로 제한하여 측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1970년대 이후 개발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Roach(1975)의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은 총 73개 문항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태도 척도로서, 주로 배우자와의 애정, 기대, 일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척도에 비해 다소 추상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또 Spanier(1976)의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은 결혼생활의 質을 부부간의 만족감, 응집성, 일치도, 애정표현 등의 4개 하부척도로 추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지닌 보다 진전된 척도이나, 각 영역간에 완전히 독립성이 지켜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적응, 의사소통, 대인간의 긴장 혹은 갈등과 같은 개념들이 더 보충되어야 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Spanier, 1976).

그리고 Snyder(1976)의 결혼만족도척도(Marit-

al Satisfaction Inventory)는 280개 문항, 11개의 하부척도로 구성된 多元의 측정도구로, 문제가족의 임상적 상담에 효율적인 과학적인 척도로서, 그중 의사소통 영역이 결혼만족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기에 문항이 너무 많은 편이고, Conventionalization, Family History of Distress 등의 영역은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Snyder의 척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관계 영역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 비교하기 위하여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영역별 결혼만족도를 병행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연구를 인구학적인 변수, 인성적 변수 그리고 사회심리적 변수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인구학적인 변수로는 학력, 취업유무, 생활수준 등이 관련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김명자, 1977; 오명숙, 1978; 유영주, 1979; 최규련, 1984), 취업유무별로 볼때 유영주(1979)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취업할 경우, 만족도가 낮았고, 김혜선(1981)의 문헌고찰 결과에서는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 여부가 이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정우(1974), 임정빈·정혜정(1986)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관 또는 취업동기에 따라 결혼만족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동인(1985)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나, 취업유무는 결혼만족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이며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명자, 1977; 오명숙,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4). 이미숙의 연구(1985)에서도 남편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생활수준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

속적인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지닌 변수로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자녀의 性別구성 등은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이미숙, 1985). 그리고 가족형태별로 연구한 논문도 있으나(최재석, 1970; 김명자, 1977; 유영주, 1979), 현재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수용한 가족형태의 구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이광규, 1981; 이정덕, 1985; 이미숙, 1985) 가족형태의 구분이 정립된 후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적 변수로는 자아실현성, 성역할특성 등이 관련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문숙재(1980)의 연구에서는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주부로서의 역할과 위치에 긍정적인 의식을 갖는다고 하였고 Gross 등(1980)도 자아실현적 인간형은 어떤 일의 기회를 얻는데 융통성(Flexibility)을 보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때에도 보다 폭넓은 견해를 수용하며, 적응력이 좋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때 자아실현성은 주부의 역할, 자원활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결혼만족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짐작된다.

한편, Bem(1974)은 성역할특성의 개념을 발달시켜 조사하였는데, 兩性性인 사람은 양특성을 모두 갖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신혜섭(1985)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특성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하였다. 남편의 성역할특성과 가족역할수행간에는 관련연구가 있으나(Kimmons, 1979; 신혜섭, 1985), 주부의 경우는 역할수행 및 결혼만족도에서 관련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셋째, 사회심리적 변수로는 역할변수들을 들 수 있다. Burr 등(1979), Rollins와 Galligan(1978) 등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가들은 역할개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명제를 정립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역할평가, 역할일치, 역할중요도, 역할긴장 등이 관련변수로 나타난다.

역할평가는 자신의 역할수행평가보다는 배우자의 역할수행에 대한평가가 결혼만족에 보다 관련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Burton, 1971; Nye

와 McLaughlin, 1974, Brinley, 1975; Chadwick, Albrecht 와 Kunz, 1976; Bahr, Chappell 과 Leigh, 1983). 또한 Nye(1982)에 의하면, 배우자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여러 역할중 배우자의 심리치료적 역할($B=0.260$)과 가족오락역할($B=0.186$)의 평가정도가 특히 결혼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에 대해 McLaughlin(1974, p. 77)은 동료감을 수반하는 역할수행이 아내에게 가장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인지된 역할일치는 결혼만족에 관련있는 변수로 나타났다(Ort, 1950; Jacobson, 1952; Luckey, 1960; Stuckert, 1963). Rollins 와 Galligan(1978)은 역할일치와 결혼만족도는 일시적 관계라고 명제화하였으나, Bahr 등(1983)은 역할수행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역할일치는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독립변수임을 재검증하였다.

그리고 역할중요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명자(1981)의 경우, 여러 역할중 어머니의 역할이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았다. Burr(1971)는 비록 약한 性差가 나타나기는 하나, 역할중요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련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 의하면 아내 측보다는 남편측의 가족역할중요도가 가족관계 변인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Bailyn, 1970; Rapoport 등 1974; Bird 와 Bird, 1984, p. 346에서 재인용).

아울러, 역할긴장은 Goode(1960)가 연구한 이래 역할변인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현재 역할갈등(role conflict), 역할과중(role overload)등의 개념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Sieber, 1974, p. 568) 상호작용이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역할긴장을 채택하고 있다. 서동인(1985)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측에서는 부정적 관계로 나타났고 부인측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임정빈·정혜정의 연구(1986)에서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역할갈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특질적 연구한 경우는 아직 미비하다.

이외에 성역할태도변인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여러 실증적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수로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Scanzoni, 1975; 이정연, 1982; 최규련, 1984; 이미숙, 1985) 그러므로, 한국문화권에서는 근대적 혹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구분보다는 부부간의 인지된 역할일치의 정도가 더 관련있는 것으로 짐작되어 본 연구에서 관련변수로 넣지 않았다. 또한 의사소통 정도와 결혼만족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도 있으나(권정임, 1981; 김혜선, 1981; 박경자 1982; 김정산·전영수, 1983) 의사소통은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의 중요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로 넣지 않았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 총 490부를 분석자료로 회수하였다. 현재 자녀가 없거나, 남편과 직장등의 이유로 별거중이거나, 이혼, 사별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는 2명이 48.4%, 3명이 31.2%로서 2~3명이 지배적이고 연령은 30대가 58.2%, 40대가 37.1%이며, 결혼기간은 10~20년 된 사람이 대부분(82.7%)이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35.5%, 대졸이 42.9%이고 주부의 취업유무별로는 취업 .부가 21.4%, 일반주부가 76.1%이다. 가정의 월수입은 30만원 미만인 10.0%, 30~60만원 미만이 47.6%이고, 60~100만원 미만은 21.8%로 적은 편이나 100만원 이상은 15.9%나 되어 비교적 중간집단이 적게 표집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 one-way ANOVA 및 각 하위집단간 Scheffé-test(유의도수준 $p < .05$), 그리고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2. 측정도구의 작성

(1) **전반적 결혼만족도** :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척도로서 Bahr 등(1983), Snyder(1979)의 것을 참고로 예비조사를 거친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Cronbach의 α 는 0.89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에 이르는 5단계 Likert형 8개 문항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7점)에 이르는 8단계 Likert형의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수의 범위는 8~47점이다.

(2) **영역별 결혼만족도** : 김명자(1977), 유영주(1979), Snyder(1979)의 척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관계를 더 첨가하여 변별력 검사를 통하여 문항을 수정 작성하였다(〈표 1〉참조). 그리하여 총 41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진술된 각 문항의 내용은 매우 만족(5점)에서 매우 불만족(1점)으로 응답하는 5단계 Likert형이며, 진술의 방향이 반대로 표현된 문항은 분석시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총점수의 범위는 41~205점이고 신뢰도 계수는 $\alpha=.87$ 이다.

(3) **자아실현성(Self-Actualization)** : 인간의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실현시키는 경향으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척도는 Shostrom의 POI를 한국문화실정에 맞게 조정 한 김재은·이광자(1981)의 척도를 사용, 그 중 변별력이 높게 나타난 17개 문항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2점 척도로서 자아실현을 나타내는 문항에 응답한 경우는 1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처리되었고 총점수의 범위는 0~17점이 된다. 신뢰도 계수는 $\alpha=.49$ 로서 낮은 편이다.

(4) **성역할특성** : 개인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으로 척도는 Bem(1974)의 BSRI를 번역한 이재연(1983)의 척도를 사용, 그 중 변별력이 낮은 4개 문항(C-6, 12, 32, 35번)을 제외한 36개 문항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7점을 주어 남성적 특성 문항은 19~133점, 여성적 특성 문항은 17~119점의 범위를 갖는다. 신뢰도

계수는 각각 $\alpha=.85$, $\alpha=.86$ 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각 특성 점수의 중앙치를 구하여 중앙치를 중심으로 각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본 연구의 중앙치는 각각 4.3점, 5.0점임). 즉,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모두 높으면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 남성적 특성은 높고 여성적 특성은 낮으면 남성성(Masculinity), 남성적 특성은 낮고 여성적 특성은 높으면 여성성(Feminity), 양성 특성이 모두 낮으면 미분화된 집단(Undifferentiated)이다.

(5) **역할평가(Role Enactment)** : 배우자가 여러 가족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하였는지 주부가 인지한 점수로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5점 Likert척도 7개 문항으로서 Bahr 등(1983)의 것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총점수의 범위는 7~35점이고 신뢰도 계수는 $\alpha=.78$ 이다.

(6) **역할일치(Role Consensus)** : 부부간에 여러 가족역할 및 가치관이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Spanier(1976), Bahr 등(1983)의 문항을 참고로 5단계 Likert척도 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항상 일치하면 5점, 항상 불일치하면 1점으로 응답하며, 총점수의 범위는 7~35점이고 신뢰도계수는 $\alpha=.79$ 이다.

(7) **역할중요도(Role Saliency)** : 남편이 행하는 여러 역할에 대해 주부가 인식하는 상대적 중요성이나 가치의 정도를 의미하며, 척도는 Bird와 Bird(1984), 신혜섭(1985)의 문항을 참고로, 가장 중요하면 10점,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0점으로 응답하는 11단계 Likert형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수의 범위는 0~70점이고 신뢰도 계수는 $\alpha=.89$ 이다.

(8) **역할긴장(Role Strain)** :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느껴지는 어려움으로 정의되며, Keith와 Schafer(1980), 서동인(1985)의 것을 참고로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항상 그렇다에 5점, 항상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평가하는 5단계 Likert형 5개 문항으로서 점수의 범위는 5~25점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43$ 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이상의 모든 척도의 문항은 가족관계 연구자 2인으로

〈표 1〉 결혼만족도의 영역, 문항내용과 변별지수

영역	문항내용	변별지수
전반적 결혼만족도	H.	
	1. 만약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0.53502
	2.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0.63613
	3. 친구들과 비교해 볼때 나의 결혼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70240
	4. 기대했던 것 보다 지금의 결혼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63793
	5. 남편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59749
	6.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0.73125
	7. 남편과 갈등이 있을때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0.54171
	8.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0.76340
9. 당신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72708	
자녀관계	I.	
	*1.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십니까?	0.05705
	2.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심을 두는 편입니까?	0.27472
	3. 당신의 자녀들은 집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편입니까?	0.16978
	4.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그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0.20576
	5. 당신의 자녀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자주 당신에게 이야기합니까?	0.28140
	6.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과 공동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까?	0.31480
7. 당신은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재미있는 놀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합니까?	0.27123	
성생활	8. 당신은 성생활에 만족합니까?	0.51253
	*9.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원하십니까?	-0.27274
	10. 당신의 남편은 성관계를 자주 요구합니까?	0.21549
	11. 당신은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어느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0.42646
	12. 당신은 남편은 때때로 당신이 원했던 성행동을 좋아합니까?	0.43641
	13. 남편과 성관계에 대하여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0.34458
	14. 당신의 남편은 때때로 성관계에 있어서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편입니까?	0.24675
15.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성적만족에 관심이 많습니까?	0.37520	
情意的 의사소통	16. 당신은 남편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0.29659
	17.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때 남편의 위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50969
	18. 당신은 남편에게 스스로없이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십니까?	0.38058
	*19. 부인께서는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느정도 남편과 이야기하십니까?	-0.34598
	20. 당신은 남편이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0.57255
	21. 당신은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때 어느정도 불평을 하십니까?	0.27624

문제 해결의 사소통	22. 당신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편과 어느 정도 의논하십니까?	0.50124
	23. 당신은 가정일에 대해 남편과 어느정도 의논하십니까?	0.46823
	24. 당신은 남편과 차이점을 느꼈을 때 새로운 방법모색에 어느 정도 노력하십니까?	0.48690
	25. 당신은 남편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어느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41324
	26. 남편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0.50872
	27. 당신은 남편과 불화가 생겼을 때 어느정도 대화를 하십니까?	0.25091
	28. 당신은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언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29356
	*29. 당신은 남편과의 논쟁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정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07386
시가관계	*30. 당신은 시가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과 많이 나누십니까?	-0.18893
	31. 당신은 시가식구들이 간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28303
	32. 당신은 시댁과의 문제로 남편과 의견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0.29530
	33. 당신은 시댁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31886
경제문제	34. 당신은 남편과 금전문제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37867
	35. 수입이 증가하면 부부관계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십니까?	0.21964
	36. 남편은 당신의 저축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불만을 나타내십니까?	0.29838
	37. 남편은 당신과 의논없이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니까?	0.16494
	38. 남편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 치중하니까?	0.24552
	39. 남편은 당신의 소비 지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니까?	0.23976
동료감	40. 당신과 남편은 이야기할때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까?	0.42885
	41. 당신과 남편은 한가로울때 같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0.44014
	42. 당신과 남편은 동반하는 횟수가 어느정도입니까?	0.43929
	43. 당신이 하기 힘든 종류의 일을 남편은 같이 해줍니까?	0.43247
	44. 남편은 여가를 당신과 같이 보내기를 좋아하니까?	0.58154
	45. 남편은 당신보다 그의 친구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까?	0.35765
	46. 당신과 남편은 함께 있는 시간이 잠잘때와 식사시간 뿐이라고 생각됩니까?	0.44471
자녀양육의 불일치*	*47. 당신과 남편은 자녀를 벌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니까?	0.28286
	48. 당신과 남편은 자녀를 벌할때 벌칙을 함께 규정하니까?	-0.19540
	49. 자녀들은 당신에게 배우지 못한 사항은 남편에게 배우니까?	-0.29103
	50. 당신과 남편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0.25512
	51. 남편은 자녀에게 애정을 충분히 표현하니까?	0.40115
	52. 당신과 남편은 자녀문제로 다툼적이 있습니까?	0.32694
	53. 남편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입니까?	-0.31593

* 변별도가 낮아 제외된 문항.

〈표 2〉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영역	평균	표준편차	단위별 평균
전반적 결혼만족도	31.86	8.55	—
자녀관계	21.54	3.20	3.59
성생활	24.07	3.81	3.44
정의적 의사소통	16.69	3.19	3.34
문제해결의사소통	25.72	4.08	3.67
시가관계	10.40	2.44	3.47
경제문제	20.27	4.13	3.38
동료감	25.01	4.70	3.57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I :

결혼만족도의 영역과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7개 영역으로 추출되고 각 문항 내용과 변별지수는 〈표 1〉과 같다. Snyder의 척도와는 달리 하위 영역중 '자녀양육의 불일치'는 문항이 거의 모두 변별지수가 낮게 나와 한국문화에서는 결혼

만족의 구성 요인이 아닌 것으로 적작된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동료감에 대해서 만족의 경향이 높고, 정의적 의사소통과 경제문제 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전반적 결혼만족도 점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역별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3〉 참고),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情意的 의사소통($r=.46,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46, p<.001$), 그리고 동료감($r=.37, p<.001$) 이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역이 결혼만족도의 중요 구성 영역임을 반영해주고 있다.

2. 연구문제 II :

관련변수 별로 결혼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4〉 참조), 우선 인구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로 보이고 Scheffe-test 결과 중졸이하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시가관계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표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월수입	1.00													
(2) 학력	0.30	1.00												
(3) 양성성	0.05 ^a	0.06 ^a	1.00											
(4) 역할평가	0.11	0.03 ^a	0.19	1.00										
(5) 역할일치	0.09	0.06 ^a	0.22	0.66	1.00									
(6) 역할긴장	-0.01 ^a	0.07 ^a	0.04 ^a	-0.10	-0.15	1.00								
(7) 전반적 결혼만족도	0.21	0.11	0.16	0.52	0.49	-0.16	1.00							
(8) 자녀관계	0.08	0.17	0.31	0.34	0.36	-0.10	0.26	1.00						
(9) 성생활	0.07 ^a	0.17	0.15	0.36	0.26	0.04 ^a	0.31	0.25	1.00					
(10) 정의적 의사소통	0.13	0.16	0.20	0.51	0.48	-0.05 ^a	0.46	0.23	0.35	1.00				
(11) 문제해결 의사소통	0.14	0.21	0.16	0.44	0.41	-0.13	0.46	0.25	0.31	0.60	1.00			
(12) 시가관계	0.12	0.04 ^a	0.05 ^a	0.24	0.32	-0.15	0.28	0.19	0.22	0.24	0.29	1.00		
(13) 경제문제	0.11	0.13	0.05 ^a	0.21	0.30	-0.11	0.34	0.13	0.12	0.33	0.40	0.25	1.00	
(14) 동료감	0.14	0.27	0.15	0.55	0.43	-0.08	0.37	0.27	0.45	0.48	0.51	0.22	0.26	1.00

註 1) 월수입, 학력은 중간척도로 재코딩하였고 성역할특성변인은 그중 양성성 변인만을 채택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것임.

a :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표 4> 관련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집단간 차이

	진 반 적 결혼만족도	자녀 관계	성 생 활	정 의 적 의 사 소 통	문 제 해 결 의 사 소 통	시 가 관 계	경 제 문 제	동 료 감
학 력	30.33 31.47 32.97	20.01 A* 21.47 22.28 B	23.13 A 24.20 B 25.02 B	16.21 A 16.64 17.33 B	24.82 A 25.75 26.82 B	10.24 10.52 10.39	19.45 A 20.46 21.01 B	23.91 A 24.89 A 26.37 B
F값 및 유의도	F=2.98 N.S.	F=5.43**	F=8.75***	F=4.19*	F=8.40***	F=0.52 N.S.	F=4.95**	F=9.41***
월	28.32 A 30.13 A 33.20 B 36.29 B	21.12 21.46 21.78 21.96	23.08 A 24.18 24.81 B 24.66 B	16.04 A 16.44 A 17.05 17.71 B	24.75 A 25.48 A 26.30 B 27.20 B B	10.02 10.26 10.36 10.91	19.05 A 19.81 21.19 B 21.39 B	23.59 A 24.82 26.57 B 25.91 B
F값 및 유의도	F=17.41***	F=1.42 N.S.	F=5.25**	F=5.41**	F=6.90***	F=2.21 N.S.	F=8.00***	F=5.41**
취업	30.39 31.90	21.90 21.46	23.61 24.15	16.68 16.64	25.34 25.85	10.25 10.45	20.19 20.30	24.43 25.13
F값 및 유의도	F=2.33 N.S.	F=1.55 N.S.	F=1.58 N.S.	F=0.01 N.S.	F=1.26 N.S.	F=0.59 N.S.	F=0.05 N.S.	F=1.78 N.S.
자 아 실 험	31.51 31.11 31.87 30.87 31.45	21.83 21.51 21.71 21.20 21.49	24.03 23.95 23.79 24.26 24.96	16.22 16.84 16.56 16.76 16.96	24.45 26.04 25.70 25.74 26.31	10.22 10.09 10.61 10.40 10.76	19.71 20.53 20.42 20.16 20.19	25.11 24.84 24.91 24.82 25.35
F값 및 유의도	F=0.33 N.S.	F=0.46 N.S.	F=1.07 N.S.	F=0.66 N.S.	F=2.40*	F=1.12 N.S.	F=0.49 N.S.	F=0.18 N.S.
성 격 특 성	34.09 A 30.65 32.69 29.58 B	23.32 A 20.84 B 21.15 B 20.61 B	25.15 23.78 24.08 23.81	17.85 A 16.62 16.50 B 16.02 B	26.94 A 25.60 26.20 24.63 B	10.65 10.20 10.72 9.88	20.68 19.59 20.43 19.94	26.26 A 25.05 25.03 24.25 B
F값 및 유의도	F=5.95***	F=18.30***	F=3.04*	F=7.01***	F=6.61***	F=2.87*	F=1.14 N.S.	F=7.01***

1. 下 집	25.34 A	20.01 A	22.04 A	14.76 A	23.07 A	9.86 A	18.94 A	20.93 A
2. 中 下 집	29.66 B A	21.07 A	23.94 B A	15.62 A	25.21 B A	9.69 A	19.88	24.31 B A
3. 中 下 집	32.09 B A	21.40 B A	23.87 B A	16.58 B A	26.26 B A	10.77 B	20.68	25.76 B A
4. 中 上 下 집	36.25 B B	22.69 B B	25.27 B	18.29 B	27.22 B B	10.76 B	21.11 B	26.82 B B
5. 上 下 집	37.23 B B	23.21 B B B	26.45 B	19.41 B	27.86 B B	11.34 B B	21.10 B	28.73 B B B
F값 및 유의도	F=35.49***	F=15.21***	F=18.17***	F=30.40***	F=22.60***	F=7.49***	F=4.59**	F=46.55***
1. 下 집	25.96 A	20.18 A	22.87 A	15.04 A	23.68 A	9.54 A	18.56 A	22.62 A
2. 中 下 집	29.81 B A	20.86 A	23.63 A	15.82 A	25.35 B A	10.13 A	20.08 A	24.54 B
3. 中 下 집	32.64 B A	21.71 B A	24.54	16.89 B A	26.20 B A	10.35 A	20.79 B	25.22 B
4. 中 上 下 집	34.16 B B A	22.19 B	24.67 B	17.25 B B A	26.69 B	11.00 B	20.58 B	25.92 B
5. 上 下 집	38.47 B B B	23.44 B B	25.70 B B	19.56 B B B	28.46 B B	11.79 B B	22.42 B B	28.59 B A
F값 및 유의도	F=33.07***	F=14.54***	F=7.68***	F=33.42***	F=19.90***	F=12.24***	F=11.09***	F=23.27***
1. 下 집	33.08 B	21.87	23.73	16.92	26.20 B	10.80	21.02	25.25 A
2. 中 下 집	32.19	21.91	24.05	16.77	25.99	10.98	20.40	25.52 A
3. 中 下 집	32.96 B	21.61	24.68	16.86	26.18 B	10.04	19.85	25.36 B
4. 中 上 下 집	29.05 A	21.27	24.40	16.75	25.65	9.92	20.14	24.20
5. 上 下 집	29.29	20.78	23.80	16.07	24.06 A	9.90	19.49	24.26
F값 및 유의도	F=4.49**	F=1.60 N.S.	F=1.09 N.S.	F=0.81 N.S.	F=3.40**	F=4.27**	F=1.25 N.S.	F=1.53 N.S.
1. 下 집	27.31 A	20.29 A	22.78 A	15.13 A	23.34 A	9.48 A	18.88 A	22.52 A
2. 中 下 집	29.59 A	21.26 A	23.99 A	16.03 A	25.14 B A	10.15	19.99	25.33 B A
3. 中 下 집	31.82 B	21.28 A	23.45 A	16.66 B A	25.75 B	10.55	20.16	23.75 A
4. 中 上 下 집	34.08 B B	22.90 B B	25.67 B B	17.86 B B	27.42 B B	10.93 B	21.46 B	26.87 B B
5. 上 下 집	35.49 B B	22.37 B	25.20 B	18.18 B B B	27.37 B B	10.99 B	21.41 B	27.91 B B B
F값 및 유의도	F=13.78***	F=9.77***	F=9.69***	F=15.81***	F=17.50***	F=6.30***	F=6.23***	F=21.94***

a: Scheffe-test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냄.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에는 차이가 없다.

*p<.05 **p<.01 ***p<.001

영역 학력수준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시사하여 준다. 가정의 월수입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이고 Scheffe-test 결과, 전반적 결혼만족도, 성생활, 情意的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경제문제 등의 영역에서 월수입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동료감 영역에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유영주(1979)의 연구에서 가정의 수입이 결혼 만족에 영향을 주나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한 점이 본 연구의 동료감 영역에서 실증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직업종류(표생략), 주부의 취업유무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부의 인성적 변수별 차이검증 결과, 性役割特性은 경제문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Scheffe-test 결과 兩性性인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양성성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적응을 잘하는 유형(Bem, 1974)이므로 결혼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자아실현성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일으키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들의 생활내용을 담은 자아실현성 척도가 아직 없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심리적 변수별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역할평가는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배우자의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한 집단은 낮게 평가한 집단에 비해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7개 영역별 결혼만족도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역할일치도 의미있는 독립변수로 판명되었는데, Scheffe-test 결과, 가족역할 및 가치관에 대해 배우자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역할중요도 역시 결혼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내는 변수로 밝혀졌다. 즉 남편의 역할수행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중요하게 느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역할평가, 역할일치, 역할중요도는 모든 영역에 걸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 결과 판명되었다.

역할긴장은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가관계 등의 영역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정빈·정혜정(1986)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이 역할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주부에서도 역할긴장과 결혼만족도간의 부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Birmbam(1971)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일반 가정주부도 역할에 대한 긴장을 느낀다고 하였는데(김명자, 1981에서 재인용), 취업주부 뿐아니라 일반주부도 가사노동의 과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신 또는 가족원들의 높은 기대로 인하여 역할긴장을 체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연구문제 Ⅲ :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역할평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표 5>).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에 대한 역할평가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고 그중에서도 배우자역할과 부양자역할, 자녀지도역할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역할일치변수이며 여러영역의 역할일치 중 금전지출일치와 가치관일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변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의 36.75%이다. 본연구와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된 Bahr 등(1983)의 전반적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는 역할일치가 가장 영향력이 높고($B=.46$) 그 다음으로 배우자역할평가가 나타나($B=.24$) 본 연구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역할평가와 역할일치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결혼만족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입증된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관계영역에서는 역할평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고 양성성, 역할일치, 학력의 順으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5〉 주부의 결혼만족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R ²
전 반 적 결혼만족도	배우자역할평가	0.22***	0.36754
	부양자역할평가	0.18***	
	금전지출일치	0.15**	
	가치관일치	0.13**	
	자녀지도역할평가	0.13**	
	역할긴장	-0.11*	
	월수입	0.11*	
자 녀 관 계	역할평가	0.19**	0.22606
	양성성	0.22***	
	역할일치	0.19***	
	학 력	0.13**	
성 생 활	역할평가	0.34***	0.13894
	학 력	0.14**	
情 意 的 의 사 소 통	역할평가	0.37***	0.32366
	역할일치 학 력	0.23*** 0.14***	
문 제 해 결 의 사 소 통	역할평가	0.30***	0.27295
	역할일치 학 력	0.23*** 0.13**	
	자아실현성	0.10*	
시 가 관 계	역할일치	0.33***	0.10909
경 제 문 제	역할일치	0.24***	0.11090
	학 력	0.15**	
	역할긴장	-0.13*	
동 료 감	역할평가	0.55***	0.35918
	학 력	0.21***	

***p<.001 **p<.01 *p<.05

타났다. 즉, 남편의 역할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주부의 性役割特性²⁾이 兩性性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배우자와 역할일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관계영역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상의 변인은 전체변량은 22.61%를 설명한다. 한편, 성생활영역에서는 역할평가와 학력이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나 남편의 역할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높을

註 2) 성역할특성변인은 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에 넣었음.

수록 성생활에서 만족도가 증가하며 이 두 변인은 전체 변량의 13.89%를 설명하여 설명력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情意的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역할평가, 역할일치, 학력의 順으로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자아실현성이 더 첨가되었다. 이상의 변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각각 32.37%, 27.30%이다.

또한 시가관계 영역에서는 역할일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B=0.33***) 다른 변인은 의미 있는 관련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다른 영역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생활의 다른 영역들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남편이 역할수행을 잘하는 것이 심리적 보상이 되어 결혼만족이 증가되지만, 시가관계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남편과의 대내적, 대외적 가족역할수행에서 의견이 일치될 때 갈등이 감소하여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문제 영역에서는 역할일치, 학력, 역할긴장의 順으로 독립적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나 역할일치가 높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상의 변인이 전체 변량의 11.09%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동료감 영역에서는 역할평가와 학력이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할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은 전체 변량의 35.92%를 설명한다.

V. 결 론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인구학적, 인성적, 사회심리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정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결혼만족도의 영역은 자녀관계, 성생활, 情意的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가관계, 경제문제, 동료감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중 情意的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동료감 등이 중요 구성 영역으로 보인다.

2)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주부의 학력이 시가관계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가정의 월수입이 전반적 결혼만족도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주부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종류 등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인성변인으로는 性役割特性이 자녀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자아실현성이 문제해결 의사소통 영역에서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兩性性(Androgynous)인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해 자녀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고,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심리적 변수로는 역할평가, 역할일치, 역할긴장 등이 관련변수로 나타났고, 역할중요도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역할평가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고,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5개 영역별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가관계와 경제문제 영역에서는 역할일치가 중요변수로 나타나 역할수행 평가보다는 남편과의 역할일치정도에 비례하여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 적합한 표준화된 결혼만족도를 시도하고, 기존연구들에 비해 자아실현성, 성역할특성 등의 변수와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관련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을 보다 높게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많은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역별 결혼만족도 중 성생활, 시가관계, 경제문제 등의 영역에서는 설명력이 10%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대부분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자아실현성 척도와 역할긴장 척도는 조사대상자의 차이로 인하여 신뢰도가 낮았다. 주부의 생활내용을 반영한 척도가 개발되어 이러한 제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방법을 ANOVA와 중다회귀분석에 의존하였으며 보다 충분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기

법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김명자,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2. 김명자,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3호 1981, 69~81.
3. 김재은·이광자, 자아실현 검사 실시 요강, 중앙적성 연구소, 1977.
4. 김혜선,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5. 문숙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Vol. 37, 이화여자 대학교, 1980, 351~379.
6. 박태은,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7. 서동인, 취업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8. 신혜섭, 도시가정에서 남편의 가족 역할 수행에 관한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9. 유영주,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1977, 1~15.
10. 유영주,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4권, 1979, 1~13.
11. 이광규, 전통적 가족구조와 변화, 한국사회 과학 연구소편, 한국 사회론, 민음사, 1981, 149~150.
12. 이미숙,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 3권 제 2호, 1985, 151~170.
13. 이옥진,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가족 환경 변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14. 이인수·유영주, 결혼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 4권 1호,

- 1986, 1~14.
15. 이재연,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시아여성연구*, 1983, 제 22집 : 87~97.
 16. 이정덕,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 가정 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985, 171~186.
 17. 이정우, 전문직 여성의 가족관계관, *아시아여성 연구*, Vol.13. 숙명여자대학교, 1974, 159~161.
 18.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19. 임정빈·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1호, 1986, 71~93.
 20. 최규련, 부부의 성 역할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권 2호, 1984, 91~101.
 21. 최재석,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아시아연구*, 제 4집 1호, 1970, 77~95.
 22. Araj, S.K., Husbands' and wives' attitude-behavior congruence on family ro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 (May), 309~319.
 23. Bahr, S.J., Chappell, C.B., and Leigh, G. K.,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3(Nov. 795~803.
 24.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April), 1974, 155~162.
 25. Bird, G.W., and Bird, G.A.,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May), 1984, 345~355.
 26. Burr, W.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1970, 29~37.
 27. Burr, W.R.,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Wiley, 1973.
 28. Burr, W.R., Leigh, G., Day, R., and Constantine, J.,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42~111 in W.R. Burr, R. Hill, F.I. Nye, and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ew York: Free Press, 1979.
 29. Chadwick, B.A., Albrecht, S.L., and Kunz, P.R., Marital and family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 (Aug.), 431~440.
 30. Clark, R.A., Nye, F.I., and Gecas, V., Husbands' work involvement and marital role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8(Feb.), 9~12.
 31. Croog, S.H., The family as a source of stress, In S. Levine & N.A., Scotch (Eds.), *Social Stress*, Hawthorne, N.Y.: Aldine Publishing, 1970, 19~53.
 32. Gross, I.H., et a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Inc., 1980.
 33. Keith, P.M., & Schafer, R.B.,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depression in two 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3(Nov.).
 34. Lewis, R. & Spanier, G.B.,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s,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35. Kimmons, L. C., Psychological androgyny and family role sharing in dual career marriages, Ph. 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979.
 36. Miller, B.C.,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Nov.), 643~657.
37. Nye, F.I., & McLaughlin, Role compet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F. I., Nye (eds.),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 1982, 67~78.
38. Roach, A.G., Frazier, L.P., & Bowden, S.R.,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1981, 537~546.
39. Rollins, B.C., & R. Galligan, The developing child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in R.M. Lerner, & G.B. Spanier (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Academic Press, Inc., 1978.
40. Scanzoni, J., Sex roles,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Feb.), 1975
41. Snyder, D.K.,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Nov.), 813~823.
42. Spanier, G.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Feb.), 15~28.